



박하선의 **사진풍경**

다큐멘터리 사진작가

## 백제의 바람



일본 아스카에 있는 서양인이 백제가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.  
반가운 일이어서 안내 겸 동행했다.  
대표적인 곳들을 거치면서 그의 진지한 눈빛에 놀라다가  
익산의 미륵사 터를 찾았다.

참 거대하고 섬세한 백제의 석탑이다.  
긴 세월에 온전한 모습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 
근래의 발굴 작업 과정에서 출토된 화려한 사리장엄구와  
그 안에 들어있던 금제사리봉영기로 인해  
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.

이 모습은 2009년 발굴하기 직전의 자태다.  
물론 이 방향에서는 지금 모습도 거의 같은 느낌이지만,  
반대 방향에서는 실망 그 자체다.  
발굴이나 보수도 중요하지만,  
그 뒷마무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.

나름대로 고심해 적잖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 
현재의 이 탑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.  
백제의 숨결을 찾아 이곳에 선 이 서양인 친구  
기대가 컸던지 낙심한 표정이다.  
그 잘났다는 우리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 씁스러워진다.

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꼭 올라야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.  
본디의 목적에 부합한 우리 안의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고,  
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의 욕심이지 않겠는가.

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.  
나라는 망한 지 오래지만, 백제의 들녘에 불던 바로 그 바람이런가.  
인결은 간데없어도 이 석탑은 오늘도 백제의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.